BNK 경제인사이트

ISSN 2384-3519

BNK 경제연구원
NO. 2022-08 (2022년 08월)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금융시장 변화 분석

이글 책임연구원(glee@bnkfg.com)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동남권 대출은 코로나19 이후 2년 6개월간 315조원에서 382조원으로 21.0%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은 증가율이다.

기업대출은 같은기간 33.4% 증가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이 예금은행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급증세를 보였다. 산업별 증가세는 부동산 시장 호조 등으로 건설업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8.7% 늘어났다. 동남권 가계대출은 역대최고 수준인 160조원까지 상승했으며 1인당 가계부채 규모는 전국 평균대비 84.9%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남권 제조업 활력제고를 위한 금융지원이 중요하다. 대내외 금융불안과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한 개인,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의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와 젊은층에 대해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대출은 21.0% 증가

동남권 대출(예금취급기관 기준)은 코로나19 이후 315조원에서 382조원으로 21.0% 증가했다[1]. 코로나19 이전의 대출 증가율(11.8%)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이 88조원에서 111조원으로 25.6% 증가하며 같은 기간 227조원에서 271조원으로 19.3% 증가한 예금은행에 비해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비은행금융기관중에서는 상호저축은행(54.0%), 신용협동조합(40.3%), 새마을금고(37.2%), 상호금융(19.9%)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경제권역별로는 수도권(33.1%)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다음으로 호남권(28.2%), 충청권(25.4%), 대경권(24.9%), 동남권(21.0%) 순으로 파악됐다.

경제권역별 대출

(십억원, %)

구분	2019.12월	2022.6월	증가율
전국	2,291,773	2,968,367	29.5
동남권	315,199 (13.8)	381,500 (12.9)	21.0
수도권	1,388,280 (60.6)	1,847,341 (62.2)	33.1
충청권	176,127 (7.7)	220,889 (7.4)	25.4
호남권	156,587 (6.8)	200,725 (6.8)	28.2
대경권	186,979 (8.2)	233,526 (7.9)	24.9

주 : 1) 전국에는 강원권, 제주권의 대출도 포함
2) ( )내는 전국대비 비중
자료 : 한국은행

동남권 기관별 대출

(십억원, %)

구분	2019.12월	2022.6월	증가율
예금은행	226,858	270,582	19.3
비은행 금융기관	88,342	110,918	25.6
상호 저축은행	4,445	6,846	54.0
신용 협동조합	10,871	15,257	40.3
상호금융	47,968	57,534	19.9
새마을금고	21,203	29,091	37.2

주 : 비은행금융기관에는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우체국, 수출입은행 등의 대출도 포함
자료 : 한국은행

1) 본 연구의 "코로나19 이후"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2019.12월~2022.6월(2년 6개월)간의 기간을 의미하며 "코로나19 이전"은 2017.6월~2019.12월(2년 6개월)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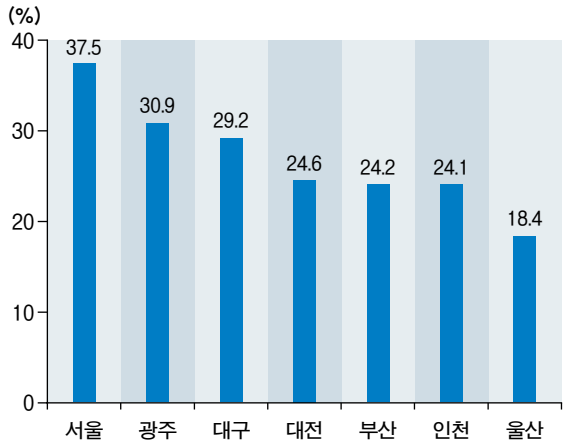
2) 전국도 코로나19 이후 비은행금융기관(44.6%)의 대출 증가율이 예금은행(24.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비은행금융기관중에서는 상호저축은행(76.0%), 새마을금고(51.2%), 신용협동조합(44.3%), 상호금융(29.5%) 순으로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파악

특별시 및 광역시의 코로나19 이후 대출 증가율을 보면 부산과 울산의 경우 5위와 7위로 파악됐다. 서울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광주(30.9%), 대구(29.2%), 대전(24.6%), 부산(24.2%), 인천(24.1%), 울산(18.4%) 순으로 나타났다[3].

도별로는 경남이 17.9% 늘어나며 오름폭이 가장 작았다. 전남(31.0%)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경기(28.1%), 충남(25.7%), 충북(25.2%), 강원(25.0%), 전북(23.2%), 제주(20.7%), 경북(19.0%)이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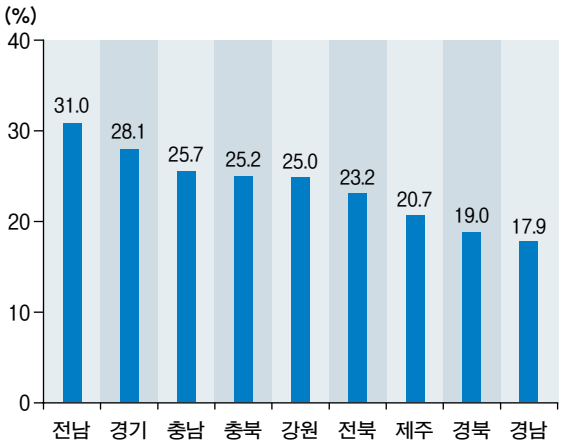
한편 지역별 대출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부산은 2019년 12월 153조원에서 2022년 6월 189조원으로 36조원 늘어났다. 같은기간 울산의 경우 43조원에서 51조원으로 8조원, 경남은 120조원에서 142조원으로 2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 · 광역시별 대출 증가율



주 : 2019.12월 ~ 2022.6월중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도별 대출 증가율



주 : 1) 2019.12월~2022.6월중 증가율
2) 세종시 대출은 충남에 포함
자료 : 한국은행

3) 코로나19 이후 특별 · 광역시의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증가율(%)

구분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울산
예금은행	30.1	27.7	25.0	17.9	22.5	20.8	13.7
비은행금융기관	71.6	37.9	41.5	39.9	30.7	36.6	27.9
계	37.5	30.9	29.2	24.6	24.2	24.1	18.4

4) 코로나19 이후 도의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증가율(%)

구분	전남	경기	충남	충북	강원	전북	제주	경북	경남
예금은행	25.6	21.9	21.1	16.3	15.2	11.9	17.7	15.0	16.4
비은행금융기관	36.5	48.5	33.2	36.5	37.4	36.9	24.9	23.8	20.8
계	31.0	28.1	25.7	25.2	25.0	23.2	20.7	19.0	17.9

기업대출, 비은행금융기관이 예금은행 대비 약 3배 급증

동남권 기업대출은 코로나19 이후 158조원에서 211조원으로 늘어나면서 33.4%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41.7%)을 밑도는 오름세이다. 지역별로는 울산(35.8%), 부산(33.6%), 경남(32.5%) 순으로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 기업대출의 경우 동남권은 비은행금융기관(72.9%)이 예금은행(24.8%)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5)6)]. 비은행금융기관중 새마을금고[7)]가 203.4%의 급증세를 보인 가운데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도 60~70% 수준의 높은 오름세를 시현했다.

경제권역별 기업대출은 충청권이 47.1%로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수도권(43.4%), 호남권(43.0%), 대경권(37.5%), 동남권(33.4%) 순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기업대출 증가율

(십억원, %)

구분	2019.12월	2022.6월	증가율
전국	1,118,013	1,584,758	41.7
동남권	158,264 (14.2)	211,198 (13.3)	33.4
부산	80,302 (7.2)	107,254 (6.8)	33.6
울산	19,759 (1.8)	26,824 (1.7)	35.8
경남	58,203 (5.2)	77,119 (4.9)	32.5

주 : (　　)내는 전국대비 비중
자료 : 한국은행

동남권 기관별 기업대출 증가율

(십억원, %)

구분	2019.12월	2022.6월	증가율
예금은행	129,774	161,938	24.8
비은행금융기관	28,490	49,260	72.9
상호저축은행	2,901	5,029	73.4
신용협동조합	6,221	10,433	67.7
상호금융	12,633	21,337	68.9
새마을금고	3,583	10,871	203.4

주 : 비은행금융기관에는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수출입은행 등의 대출도 포함
자료 : 한국은행

5) 코로나19 이후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증가세는 부동산 PF 대출 및 경기민감업종(도소매 · 음식숙박 · 운수창고업 등)에 대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며 예금은행 대출 증가세를 상회. 이에따라 동남권 기업대출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2월 18.0%에서 2022.6월 23.3%로 크게 상승

6) 경제권역별 기업대출 증가율(2019.12월~2022.6월, %)

구분	전국	동남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예금은행	29.4	24.8	32.2	26.5	24.5	23.1
비은행금융기관	95.4	72.9	99.8	106.7	93.5	91.6
계	41.7	33.4	43.4	47.1	43.0	37.5

7) 지역별로는 부산(181.7%), 울산(215.5%), 경남(249.5%) 모두 세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 시현

산업별 대출 증가율은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순

코로나19 이후 동남권의 산업별[8] 기업대출 증가율을 보면 건설업(40.2%)이 가장 높았다.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건설수주 증가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특히 동남권의 건설업 대출 증가세는 전국 건설업 대출 증가세(23.8%)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비스업(31.5%)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 · 보험(60.2%), 교육서비스(38.6%), 숙박 · 음식(35.6%), 도소매(32.2%), 부동산(31.0%) 업종 등이 대출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9]. 다만 동남권 보건 · 복지서비스(23.1%), 운수창고(22.3%) 업종 등은 국내 서비스업 평균 증가율(25.3%)을 하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제조업(10.5%)은 소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15.7%)에 못 미치는 미약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동남권 주력산업 부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로는 조선이 -2.5% 감소했으며 자동차(4.9%), 석유정제(5.2%), 철강(6.9%), 금속(7.0%), 기계(11.8%) 등 동남권 주력업종 대부분이 국내 제조업 평균 증가율(15.7%)을 하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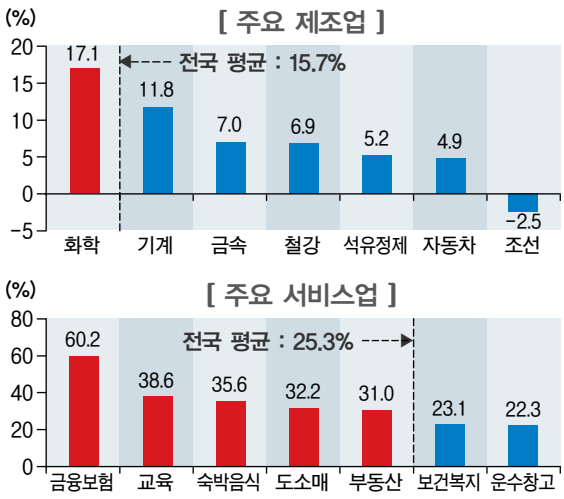
산업별 대출 증가율

(십억원, %)

구분		2019.4분기	2022.1분기	증가율
동남권	제조업	58,773	64,930	10.5
	서비스업	66,482	87,431	31.5
	건설업	3,332	4,672	40.2
전국	제조업	323,125	374,014	15.7
	서비스업	535,925	706,803	31.9
	건설업	27,864	34,494	23.8

주 : 예금은행 기업대출 기준
자료 : 한국은행

동남권 주력산업 대출 증가율



주 : 예금은행 기업대출 기준
자료 : 한국은행

8) 산업별 대출은 월간 및 2022.2분기 자료가 공표되지 않아 2019.4분기 및 2022.1분기의 분기데이터를 사용

9)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서비스업 업종별 기업대출 규모 증감액을 살펴보면 부동산업이 6.8조원 늘어나며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도소매업(5.7조원), 숙박음식점업(2.4조원) 순으로 파악. 전체 동남권 서비스업 대출규모 증감액중 부동산업 증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2.9%, 도소매업은 27.4%, 숙박음식점업은 11.7% 순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8.7% 증가

동남권 가계대출은 2019년 12월 146조원에서 2022년 6월 159조원[10]으로 8.7% 늘어나며 전국 평균(15.8%)을 밑도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산(14.9%)은 전국과 비슷했으나 울산(3.8%) 및 경남(3.6%)은 한 자릿수의 더딘 오름세를 보였다.

기관별로는 동남권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12.1% 증가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2.8%)보다 높았다[11]. 비은행금융기관 중에서는 상호저축은행(17.6%), 신용협동조합(11.9%)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상호금융(1.7%), 새마을금고(1.1%)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12].

경제권역별로 보면 수도권(19.6%)이 가장 높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대경권(12.1%), 호남권(11.9%), 동남권(8.7%), 충청권(8.4%) 순으로 조사됐다.

동남권 가계대출 증가율

(십억원, %)

구분	2019.12월	2022.6월	증가율
전국	1,083,982	1,255,250	15.8
동남권	146,260 (13.5)	159,013 (12.7)	8.7
부산	66,098 (6.1)	75,939 (6.0)	14.9
울산	21,601 (2.0)	22,420 (1.8)	3.8
경남	58,561 (5.4)	60,654 (4.8)	3.6

주 : ( )내는 전국대비 비중
자료 : 한국은행

동남권 기관별 가계대출 증가율

(십억원, %)

구분	2019.12월	2022.6월	증가율
예금은행	93,158	104,415	12.1
비은행금융기관	53,103	54,598	2.8
상호저축은행	1,545	1,817	17.6
신용협동조합	4,301	4,815	11.9
상호금융	33,291	33,864	1.7
새마을금고	13,805	13,951	1.1

주 : 비은행금융기관에는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우체국 등의 대출도 포함
자료 : 한국은행

10) 동남권 가계대출은 2021.12월 160.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금리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

11) 경제권역별 가계대출 증가율(2019.12월~2022.6월, %)

구분	전국	동남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예금은행	17.9	12.1	20.3	9.7	14.6	19.5
비은행금융기관	10.6	2.8	16.5	6.9	9.8	3.3
계	15.8	8.7	19.6	8.4	11.9	12.1

12) 새마을금고는 경남(4.8%)은 증가했으나 부산(-0.9%)과 울산(-0.4%)이 감소. 상호금융은 부산(3.2%)과 경남(2.1%)은 증가했으나 울산(-1.5%)이 감소

동남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019년 12월 86조원에서 2022년 6월 96조원으로 12.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전국과 비슷한 18.1%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울산(4.9%), 경남(6.6%)은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권역별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이 19.5%의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호남권(16.5%), 대경권(15.2%), 동남권(12.5%), 충청권(10.7%)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남권 기타대출은 같은기간 61조원에서 63조원으로 3.3% 증가하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크게 하회했다. 지역별 증가율은 부산(7.7%), 울산(2.6%), 경남(0.7%) 순으로 조사됐다.

경제권역별 기타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수도권(19.7%)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호남권(11.9%), 대경권(8.5%), 충청권(6.2%), 동남권(3.3%) 순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십억원, %)

구분	2019.12월	2022.6월	증가율
전국	633,745	743,744	17.4
동남권	85,606 (13.5)	96,329 (13.0)	12.5
부산	45,931 (7.2)	54,224 (7.3)	18.1
울산	11,273 (1.8)	11,826 (1.6)	4.9
경남	28,403 (4.5)	30,279 (4.1)	6.6

주 : 1) (　　)내는 전국대비 비중
　　2) 2019.12월～2022.6월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동남권 기타대출 증가율

(십억원, %)

구분	2019.12월	2022.6월	증가율
전국	450,237	511,506	13.6
동남권	60,654 (13.5)	62,684 (12.3)	3.3
부산	20,168 (4.5)	21,715 (4.2)	7.7
울산	10,328 (2.3)	10,594 (2.1)	2.6
경남	30,158 (6.7)	30,374 (5.9)	0.7

주 : 1) (　　)내는 전국대비 비중
　　2) 2019.12월～2022.6월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예금은 16.6% 증가

동남권 예금은 코로나19 이후 324조원에서 378조원으로 16.6%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의 예금 증가율(13.0%)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는 동남권 비은행금융기관이 17.4% 증가하여 예금은행(15.7%)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비은행금융기관 중에서는 상호금융(13.8%)을 제외한 상호저축은행(32.7%), 신용협동조합(28.4%), 새마을금고(25.7%) 등이 예금은행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경제권역별로는 충청권(30.1%)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수도권(29.9%), 호남권(22.5%), 대경권(20.7%), 동남권(16.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21.7%, 경남은 19.0%, 부산은 13.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남권 예금 증가율

(십억원, %)

구분	2019.12월	2022.6월	증가율
전국	3,433,832	4,375,281	27.4
동남권	324,404 (9.4)	378,360 (8.6)	16.6
부산	162,488 (4.7)	184,547 (4.2)	13.6
울산	43,028 (1.3)	52,374 (1.2)	21.7
경남	118,888 (3.5)	141,439 (3.2)	19.0

주 : ( )내는 전국대비 비중
자료 : 한국은행

동남권 기관별 예금 증가율

(십억원, %)

구분	2019.12월	2022.6월	증가율
예금은행	154,178	178,458	15.7
비은행금융기관	170,226	199,902	17.4
상호저축은행	6,099	8,096	32.7
신용협동조합	13,515	17,349	28.4
상호금융	60,744	69,117	13.8
새마을금고	30,259	38,027	25.7

주 : 비은행금융기관에는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우체국 등의 예금도 포함
자료 : 한국은행

13) 경제권역별 예금 증가율(2019.12월~2022.6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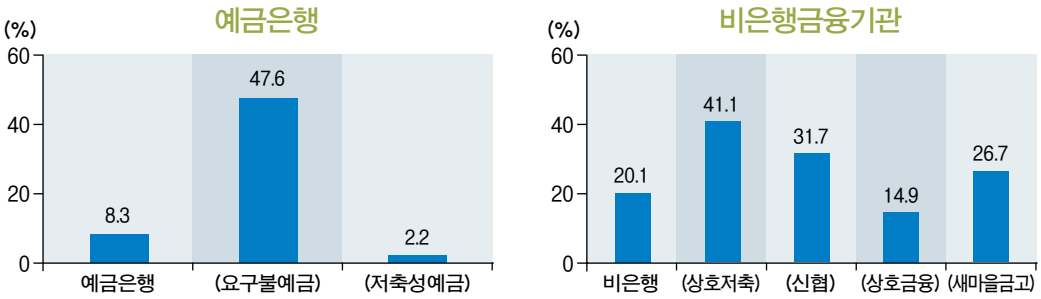
구분	전국	동남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예금은행	28.4	15.7	30.3	37.9	20.4	24.9
비은행금융기관	26.6	17.4	29.5	24.0	24.0	17.6
계	27.4	16.6	29.9	30.1	22.5	20.7

[참고] 동남권 지역별 예금 증가율

▣ **부산** : 13.6% 증가

– 예금은행 : 8.3% 증가 (요구불예금 47.6%, 저축성예금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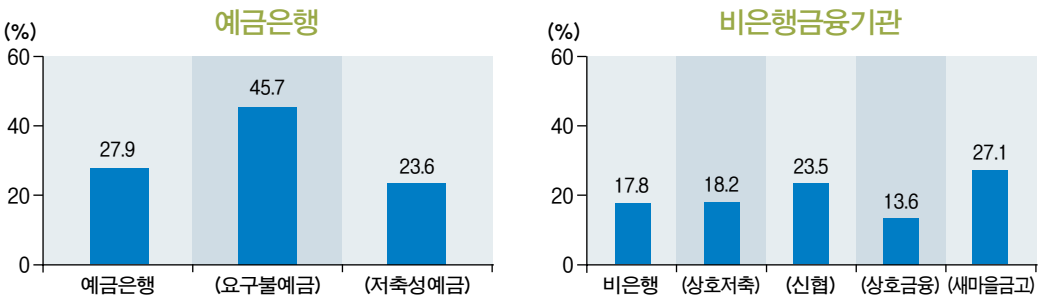
– 비은행 : 20.1% 증가 (상호저축 41.1%, 신협 31.7%, 새마을금고 26.7%)



▣ **울산** : 21.7% 증가

– 예금은행 : 27.9% 증가 (요구불예금 45.7%, 저축성예금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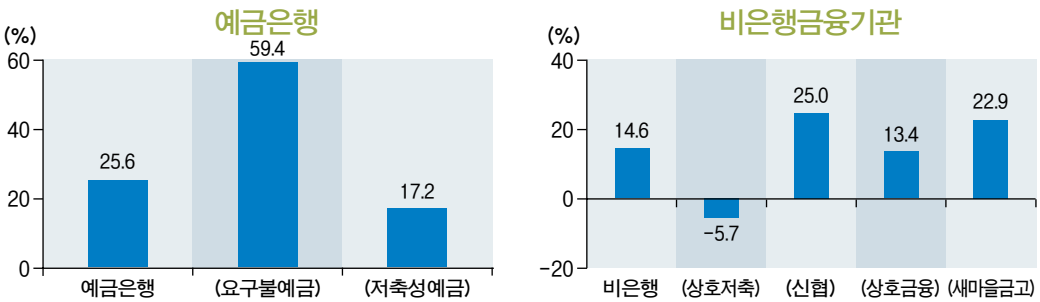
– 비은행 : 17.8% 증가 (새마을금고 27.1%, 신협 23.5%, 상호저축 18.2%)



▣ **경남** : 19.0% 증가

– 예금은행 : 25.6% 증가 (요구불예금 59.4%, 저축성예금 17.2%)

– 비은행 : 14.6% 증가 (신협 25.0%, 새마을금고 22.9%, 상호금융 13.4%)



주 : 1) 2019.12월~2022.6월 증가율
2) 예금은행은 원화예금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제조업 활력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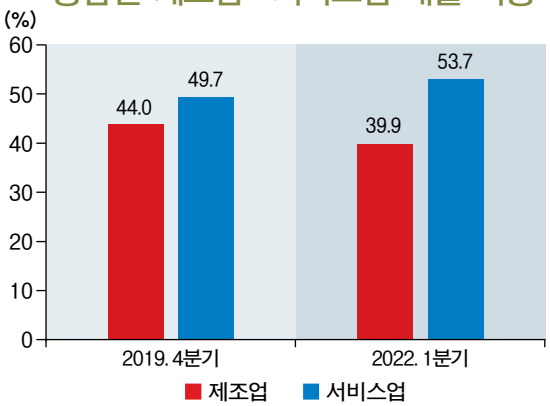
동남권 대출은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서비스업 비중은 49.7%에서 53.7%로 늘어났으나 제조업은 44.0%에서 39.9%로 축소됐다.

제조업 활력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중요하다. 특히 동남권은 오랜 침체를 겪었던 조선업 반등으로 금속, 화학, 철강 등 후방산업의 동반 개선이 기대되는 시점인 만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한편 동남권 가계대출은 역대최고 수준인 160조원까지 상승했고 1인당 가계부채 규모는 전국 평균대비 84.9%[14]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높아 부채 리스크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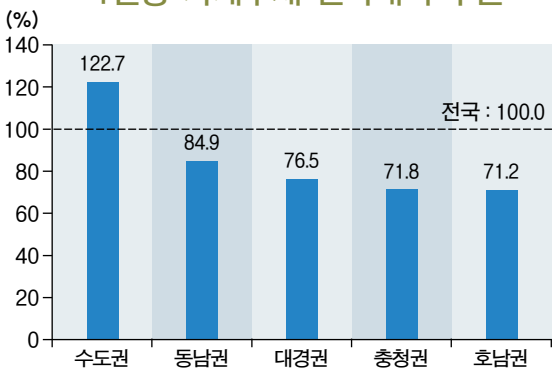
동남권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계는 자발적으로 부채관리를 강화하고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은 분할상환, 만기연장, 신용회복 등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특히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와 젊은층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동남권 제조업 · 서비스업 대출 비중



주 : 1) 예금은행 기업대출 기준
2) 기타업종(건설업 등) 비중은 미표기
자료 : 한국은행

1인당 가계부채 전국대비 수준



주 : 1) 2022.6월 말잔 기준
2) 가계부채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기준
자료 : 한국은행

14) 지역별 전국 평균대비 1인당 가계부채 규모는 부산 94.7%, 울산 82.9%, 경남 75.8%로 조사

[참고문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2.6

한국은행 경남본부, “최근 경남지역 금융기관 여신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018.7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지역 가계부채 리스크 분석과 시사점”, 2018.1

_____, “부산지역 가계부채 잠재리스크 점검”, 2022.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통계청, www.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8

01 |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04 |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05 | 동남권 경공업 동향 및 시사점
06 | 동남권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07 | 2020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 뿌리산업 개편과 동남권 발전과제
09 | 동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10 | 동남권 기계산업 동향 및 시사점
11 | 2021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0년 동남권 경제

2021

01 | 2021년 동남권 수출 전망
02 | 동남권 신공항과 지역경제의 미래
03 |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시사점
04 |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05 | 동남권 자동차산업 동향과 발전과제
06 | ESG 전환과 동남권 대응과제
07 | 2021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 수소경제의 미래와 동남권 대응과제
09 | 조선산업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10 |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전망
11 | 2022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1년 동남권 경제

2022

01 |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수출 변화 분석
02 | 동남권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03 | 동남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발전과제
04 | 원자재 시장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05 |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자영업 변화 특징
06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 ICT산업 현황
07 | 2022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금융시장 변화 분석



BNK BNK금융지주

제2022-08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 행 인 김지완
편 집 인 김성주
발 행 처 BNK금융지주(www.bnkfg.com)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 락 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 쇄 애드벤처
2022년 8월 31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